

추계예술대학교

2022년도 제1회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구성단위	의원정수	재적의원	참석의원
교원	5	5	5
직원	2	2	2
학생	2	2	2
동문·외부	2	2	0
조교	1	1	0
회의개최 통보일	2022. 2. 7.		

1. 일 시 : 2022. 2. 16.(수) 13:00 - 14:10
2. 장 소 : 창조관 802호 소회의실 / ZOOM
3. 부의안 :
 - 가. 2022학년도 대학 교육과정 변경 자문(안)
 - 나. 대학 학칙 변경 심의(안)
 - 다. 교비회계 2021학년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 자문(안),
 - 라. 교비회계 2022학년도 자금예산 자문 (안)
 - 마. 대학원 학칙 변경 심의(안)
4. 의원 출결사항
 - 참석의원(9인) : 안성아, 김영환, 김성경, 조은아, 김현주, 나인수, 권오훈, 심보미, 이성재,
 - 결석의원(3인) : 서문석, 강종표, 윤별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정현주 간사 의원출석 점명에 이어 재적의원 12명중 9 참석으로 성원 완료 보고하다.
 - 나. 개회
 - 안성아 의장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후 2022년도 제1회 대학평의위원회를 개최하다. 부의안 제1호 내지 2호, 제5호는 교학처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고 담당자의 설명과 질문을 구할 것을 제안하다.

- 김영환 의원 외 전체 의원 동의와 제청하다.

다. 부의안 2022학년도 대학 교육과정 변경 자문(안)

부의안 대학 학칙 변경 심의(안)

부의안 대학원 학칙 변경 심의(안)

- 안성아 의장 안건 일괄 상정하고 부의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 부서에게 청하다

(김미선 주임, 교무팀장 정재민)

- 정재민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다.
- 김미선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다.
- 정재민, 김미선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다. 질문을 요청하다. 지난 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 컨설팅 후속 조치로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제시한 모델에 따라 교양학부 기초교양신설과 학점 다양화가 주요 변경사항임을 부연 설명하다.
- 조은아 의원 교양 학부 과목 변경 주요 방향에 대해 질문하다.
- 김미선 교육원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에 맞춘 교육과정임을 설명하다.
- 안성아 의장 교무팀에서 상정한 안건은 교육과정의 개편 필요에 따라 혁신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교양은 교양 교육 컨설팅 관련 내용 참조 보완 및 개선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 시 해당 안 자문과 심의 의결을 요청하다.
- 조은아 의원 외 전체 의원 동의와 제청하다.
- 안성아 의장 원안 가결을 선포하다. 이후 안건은 추경과 본예산 자문(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설명과 질문을 제안하다.
- 나인수 의원 외 전체 의원 동의와 제청하다.

라. 부의안 교비회계 2021학년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 자문(안),

부의안 교비회계 2022학년도 자금예산 자문 (안)

- 안성아 의장 안건 일괄 상정하고 부의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 부서에게 청하다

(기획팀장 정현주) 사전 배포한 회의자료를 자세히 설명하다.

- 김현주 의원 지사관 냉난방기 교체 관련 질문으로 추계기념관의 일부도 포함되었는지를 질문하다.
- 나인수 의원 지사관 개별 냉난방 필수로 일괄 공사가 필요하고, 천장을 정리하고 공사해야 함과 추계기념관과 지사관의 우선 공사 순위는 주무 부서에서 자세하게 파악 한 후 결정할 것임을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추경 관련 질문하여 마법 최종 적자 해소 방안 빼고 해결 불가능 시 한계

대학으로 갈 수 있는데 / 법인 지원금, 기부금 등 다각적인 방안 채택 불구 부족분 발생 시 나머지 부족분 해소 방안 마련 및 10년 불용 처리 8천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질문하다.

기획팀장 정현주) 지적하신 데로 1번 ~ 5번 실현 시 2억 9천 해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8천만원 금액을 총무팀으로부터 최근 통지되었고, 누적된 금액을 올 해 처리되고 예수금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전달 받았음을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유학생 등록금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을 끌어오는 개념인지 질문하다.

(기획팀장 정현주) 선수 등록금은 미리 사용할 수 없고, 한국어수업료 등임을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2022학년도 부족분 21억은 기부금 외 해결방안이 있는지와 유학생 지속적인 투입 비용 존재 총원 교원, 기숙사 10억 등 예상 순수입 감소 우려되며, 외국인 유학생 관련 직원 채용, 교원 채용 투입 비용 규모 질문하다.

(기획팀장 정현주)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수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사업도 있으며, 앞으로의 노력 필요하다. 수익 창출 기회 부여 필요하며, 작년 42억 법인전입금 30억 및 많은 부분 충당 실현되었고, 수입 부분 지속적 증가, 지출 지속적 감소 예측한다. 시설 사용, 기타 기부금 창출 적극적 추진 예정이고 올해 예산 미반영되었으므로 본예산보다 1차 추경 시점에서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유학생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해 교원 확보 목적 전임 교원 채용하였으며 유학생 등록금, 비등록금 수입 발생 관련 보고와 함께 지출 부분도 보고 할 기회가 있을 것임과 유학생의 유입은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단 것을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몇 명 총원되었는지 질문하다.

○ **안성아 의장** 교원이 퇴직하는 분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이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 쪽 유학생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 확보율을 맞추기 위해서 국제학 쪽에 지금 신임으로 네 분 그다음에 교양 쪽에 두 분 네 근데 그건 이번과 지난번에 퇴직하신 교수님들 수를 채우는 것도 포함입니다.

○ **권오훈 의원** 기존에 있는 학과에 채용되시는 분 말고 순수하게 외국 유학생에 필요한 국제 교류라든가 대학원에 외국인 유학생만 강의하는 데는 교원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총원되는 인원을 질문하다.

○ **안성아 의장** 4분으로 기억합니다.

○ **권오훈 의원** 마무리 질문을 하자면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글로벌의 연세 교육원이 2017년인가 한 4~500명 정도를 유치해가지고 왔는데 학교로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또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없애는 시점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명들의 교원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학교측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부도 고민이 돼서 총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하다. 물론

교원 확보율이 중요한 동시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컨설팅 관련 결과 보고인데, 성과급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발전기금과 연관이 된다. 올해도 부족 재정 중 발전기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올해 처럼 연말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판단이 빨리 이루어 지면 좋겠고 이 발전기금과 성과급 문제가 결부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파일럿 진행이라도 진행을 하다 보면 등급이 낮은 직원은 자기 급여보다 적게 받는데 또 기부까지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지금 재도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과급 제도를 하게 되면 작용 반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허탈감에다가 재정적으로 부담에다가 또 기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학교도 힘들고 구성원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도 판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발전 기금도 연관되므로 학교 측에서는 빨리 정리해서 성과급시행을 알려줘야 한다. 이런 걸 정해줘야 구성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학교 재정의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결정을 할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 안성아 의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1년 초에 이미 재정설명회를 하면서 발전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합의가 안 되다 보니 1년 내내 결정이 안 되고 좀 끊어졌고 연초 예산 보고회 계획을 설명하다. 성과급 제도에 대한 설명은 급여는 우리 대학에서 노조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음대로 급여체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님과, 아시다시피 그리고 성과급 제도는 2022년은 저희가 파일럿으로 해보지만 이것이 실제 성과급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제안 드렸음과 교직원들분들께서 그래서 2022년은 한번 파일럿으로 진행을 해본다 그리고 2023년에 이것을 성과급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노사 협의 사항으로 같이 이야기를 할 예정임을 부연 설명하다. 다시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며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다.
- 권오훈 의원 결국 내년에 등급이 나오고 성과급 집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질문하다.
- 안성아 의장 내년 집행 없고, 내년은 파일럿 운영하고 2023년에 실행하고 2024년부터 집행 계획임을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2022학년도 계획만 짜는 것인가를 질문하다.
- 안성아 의장 지표와 목표를 무엇으로 할것인지를 연습하고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년 시행 해보고 제도 보완을 하면서 2023년도 본격적으로 시행 해 보자가 현재 안이다.
- 권오훈 의원 이 중요한 시점에 재도전을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거기에 총력을 해서 제가 계속 몇 차례 건의를 드렸거든요. 경영진단 컨설팅 비용을 안 쓰고 재도전 비용으로 내년에 집행했으면 과부족이 2억 9천이 아니라 2억 1천만 원 정도 2억으로 좀 줄어들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되고 구성원들끼리 지금 교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거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알고

-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안성아 의장 누구도 평가 받는 거에 대해 달가워하진 않을 것이나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재정건전성과 지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 권오훈 의원 총장 선출 제도도 파일럿으로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경영진단이면 총장도 구성원이니 경영진단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 안성아 의장 총장 선출은 법인 결정사항이다.
 - 권오훈 의원 총장공약, 비전을 제시, 공약 이행률, 발전 기금 모금 실적 등, 사실 총장님이 발전 기금을 계속 끌어 오시고 얼마 전에도 3천만원 현물을 일시금으로 내시고, 중국 출장시도 법인카드 쓰지 않고 개인 카드로 해 주시고 암사동 땅 매각할 때도 개인 카드로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성원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알리면서 목표치를 채울 때 구성원들한테 총장의 노력을 좀 알아줘서 우리 같이 애교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타파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총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총장을 끌어내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총장 자체도 공약을 내세워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죠. 구성원들 돌격 앞으로 하듯이 그렇게 목표점을 설정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구성원들이 총장의 노력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이 얘기는 계속 다른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장 추천위원회를 교직원 학생 지금 학생 대표들도 있기 때문에 교직원 학생들이 모여서 총장 추천위원회를 한번 파일럿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사이트홀이나 이런 데서 공약 발표를 하시고 언제 임기가 시작됐는지 언제 임기가 끝났는지 저희가 어떤 공약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총장 임기도 종신으로 바꾸고 자격의 개방성으로 설명했는데 총장도 공약 발표 하고 재신임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라고 주문하다.
 - 안성아 의장 심의사항은 아니나 주신 의견 총장께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다. 조직 인사 재정 마케팅 이 부분이 다 경영이므로 이번에 조직과 인사의 합리화와 그리고 일부 재정효율화 방안을 컨설팅사에 의뢰하고 안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유학생 선발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를 당부하다. 주로 음대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미대 유학생의 경우 언어 등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율예산제로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었다.
 - 안성아 의장 국제학부 유학생 관련해서는 교무위원회 통해서 의견을 주시는게 맞으나 국제 팀장이 이 자리에 있어서 그 부분 포함해서 예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유학생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고 현재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과,

특히 미대에서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학생 가르치시느라고 애쓰시고 힘드시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국제교류원 유학생 시행 이전에 미대로 이미 입학한 유학생 사례가 있다 보니 일원화 되지 않았으며 향후 지적하신데로 일원화 할 것을 말씀드리다. 국제교류원 회의에 상정할 것과 영상 비즈니스과 11명 외국인 신입생은 유학생 정책으로 입학 한 것임을 설명하다. 언어가 안 된 학생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어학당을 통해서 한국어 훈련과 문화 적응을 한 다음에 수업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설명하다. 두 번째는 자율 예산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서영 덕 교육혁신원장의 연구로 최초 시행된 것이 가장 큰 의미이며 학과 운영비 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 향후 등록생수, 등록금수입, 지표 달성도 등 학과자율예산제가 성숙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게 마련할 것을 말씀드리다. 올해는 기획팀 예산 담당자의 병가, 직원 교체 등 업무인력이 부족하여 예산 수립 기간 부족과 학과 운영비동결, 교육혁신 예산 마련의 2가지 전제로 본예산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음에 양해를 구하다.

- 김현주 의원 성과급 관련해서도 교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적자 회복을 먼저 한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다.
- 안성아 의장 아무래도 보상과 연결되는 건 저도 이제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지금 재정 상황 적자 상태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 같이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다시 일단은 평가는 저희가 전체 조직의 좀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부 평가에 계속 대응하기 위해서 좀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상으로 연결될지는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저희 최종 결론 제안한 것이 한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더 큰 차이를 제안했는데 주간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교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 폭을 줄여서 그렇게 줄인 거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김현주 의원 유학생은 되도록 받아 들이되 등록금을 더 받고 한국어수업을 의무화하고 보완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제교류팀장) 우리 대학 유학생 정책의 특징은 모든 학생에게 한국어수업을 수강하고 실제로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평가 받게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임을 설명하다.
- 안성아 의장 부의안 3호와 4호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추가 질문이 없자 원안 가결을 제안하다.
- 김영환 의원 외 전체 의원 동의와 제청하다.
- 안성아 의장 원안 가결을 선포하다. 기타 안건으로 변경되는 직제에 대해 기획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팀장) 자세히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입학상담실 등 변경되는 공간이 많은데 정확한 공간재배정에 대해 질문하다.
- 안성아 의장 국제교류원이 청사관으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는 센터들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여 학생중심형 서비스로 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평가까지는 기획팀과 혁신원이 물리적으로 지근 거리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 권오훈 의원 몇 년 전 행정부서가 학생편의를 위해 창조관 1층으로 배치하여 원스톱이 되면 좋겠고 도서관이 책을 많이 보유하여 지하주차장 붕괴 우려도 있고 공간이 좁은 관계로 지송관 2층은 도서관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그리고 광고 한가지를 드리면 국제교류원에서 노력하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통과하였다. 아직은 가인증이고 곧 발표가 될 것인데 외국인 유학생 선발이 좀 간소화되고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으므로 자리를 빌어서 국제교류원, 특히 국제교류팀에서 인증을 받게끔 하신 분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다른 의원들한테 광고를 드립니다.
- 안성아 의장 국제팀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
- 전체 의원 축하하다.
- 김현주 의원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통로가 좁고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다.
- 안성아 의장 다른 대학들은 요즘 자료 찾는 것이 다 인터넷 외부로 찾는 곳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는 자료 보관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나 약간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권 의원님 주신 제안은 아마 지금 사무처장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다음 공간배정위원회 때 또 좀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구성원을 대표하셔서 같이 함께 또 의논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없으시면 여기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 전체 의원 동의와 제청하다.

6.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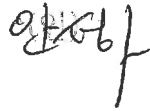
- 안성아 의장 회의에서 주신 의견들을 해당 부서에 전달할 것과 감사 인사를 끝으로 14:10분. 2022년도 제1회 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 2022년도 제1회 대학평의원회 회의서류 1부. 끝.

2022년 2월 16일

기록 : 간사 정 현 주 김현주

의장 안 성 아



의원 김 영 환



의원 김 성 경



의원 조 은 아



의원 나 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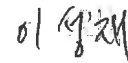
의원 김 현 주



의원 심 보 미



의원 이 성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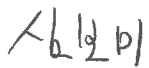


의원 권 오 훈



추계예술대학교 2022학년도 제1회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을 의원 대표로 확인합니다.

- 1) 위원 여러분께 회의 개최 7일전 통지와 회의자료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 2)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3) 전차 회의록 공개와 본 회의 개최에 관련한 제반 규정이 적절하게 준수되었음을 회의 참석 의원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4) 이에 의원을 대표하여 학생 위원이 자필로 사인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학생 대표	비대면 회의 확인 
학생 대표	비대면 회의 확인 